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유형의 매개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Korean Language Levels and Years of Residence in Korea  
on the Parenting Behaviors of Marriage-Immigrant Moth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Parenting Knowledge and Acculturation Patterns\*

정선영(Sun Young Jung)<sup>1)</sup>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Korean language levels and years of residence in Korea of marriage-immigrant mothers on their parenting behaviors. It also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parenting knowledge and acculturation patterns. To do this, this paper made use of data collected from 130 mothers participating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ing knowledge did not mediate Korean language levels as well as years of residence in Korea and parenting behaviors. Second, years of residence in Korea indirectly affected parenting behaviors through the acculturation patterns of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but did not appear to do so directly. Third, Korean language levels did not have a linear relationship with acculturation. Fourth, higher Korean language levels were correlated with higher levels of overprotection of children.

**Key Words** : 다문화가정 어머니(marriage-immigrant mothers), 문화적응(acculturation), 한국어수준  
(Korean language levels), 한국거주기간(years of residence in Korea)

---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sup>1)</sup>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 Young J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E-mail : sunyung@incheon.ac.kr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 I. 서 론

결혼이민은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국내의 혼인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Lee, 2012). 2011년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는 14만 5천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1% 증가하였으며, 국적 분포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이 44.4%, 베트남이 25.9%, 일본이 7.7%, 필리핀이 5.8%를 차지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결혼이주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수도 2007년 44,258명, 2008년 58,007명에서 2010년 121,935명으로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n.d.).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애착 발달(Park & Kim, 2007), 언어 발달(Hwang & Jeong, 2008; Park, Rhee, Rho, Lee, 2012), 사회성 발달(Jeong, 2004; Oh, 2007)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기제(mechanism)라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육행동과 아동기에 대한 개념은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는 점(Lareau, 2002)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신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하는 자녀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양육해야 하는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주의 역사가 긴 북미의 연구들은 가족이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이주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복잡한 변화과정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민자 부모가 문화적응 과정에서 출신국의 문화와 이주국의 문화에서 인지적 특성과 실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Bornstein & Bohr,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질적으로 관찰·분석한 연구(예 : Gu, 2007; Jun, Pae, & Kwak, 2008)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문화적 요인(예 : Kim, 2009a; Kim, Lim, & Chung, 2008)과 양육행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예 : Chung & Shin, 2009; Park & Kim, 2007)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육행동을 크게 자율적·애정적·통제적·거부적으로 나눈 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교육수준·연령·직업유무·출신국가·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각 양육행동의 하위영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 Kim 외(2008)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이러한 특성이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출신국가와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아지지만 출신국의 문화정체성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리’ 수준은 양육효능감과 부적관계를 이룬다는 Kim(2009a)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이외에도 결혼이주와 관련된 여러 요인(예 : 출신국의 문화, 한국문화로의 적응)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출신국가와 한국의 문화 중에서 자신과 자녀에게 적합한 인지적 특성과 실재를 선택하는 문화적응 과정을 보여주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이 두 변인은 본 연구결과에 따른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관찰 가능한 객관적 변인이기 때문이

다. Berry(2003)는 문화적응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개념이어서 한 가지 차원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각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진행속도도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각 요인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Phinney & Flores,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 각각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를 살펴본 Kim, Lim, Chung(2008)의 연구를 통해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3-5세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 한국어를 사용할수록 더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출신국 언어를 주로 사용할수록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리라 가정할 수 있다. 북미의 이민자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Bornstein과 Cote(2004)는 언어습득 수준이 양육행동과 관련을 보이는 것은 언어습득 수준이 양육지식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부모의 양육지식이 백인 부모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이들은 양육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양육서적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은 이민자 부모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출신국 언어와 다른 언어로 쓰인 양육서적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언어적 차이로 인해 서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

지 못한다에서 기인한 문제라고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거주기간의 경우, Kim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Kim 외(2008)의 연구는 거주기간과 양육행동이라는 두 변인의 관계만 살펴보았을 뿐 출신국, 가구소득,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Kim(2009a)은 거주기간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자신의 출신국과 한국의 생활경험(예 : 음식, 의복, 언어)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출신국의 문화를 고집하는 분리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거주기간이 문화적응의 양상을 통해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직접적으로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하였다.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은 ‘아동 발달과정·양육기술·발달규준에 대한 이해로 이루어진 성인 사회인지의 한 측면(Dichtelmiller, Meisel, Plunke, Bozynski, Clafin, & Mangelsdorf, 1992)’으로, 양육태도 혹은 가치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반면에 양육지식은 임상과 연구 분야에서 타당한 것으로 입증된 과학을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주국 언어의 습득 정도는 양육지식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주국 문화의 생활양식과 사회시스템을 익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적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언어적 차이로 인해 서적이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양육지식의 접근에 제한이 있는 경우 오랜 거주기간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양육지식을 얻는 것도 가능하리라는 점에서 한국 거주기간은 양육지식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Berry(2002)는 이주민들이 두 개의 상이한 문화에 노출되어 접촉하면서 개개인이 겪는 문화적응 과정에 대해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이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의 수준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하였는데, 현재까지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문화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없다. 출신국과 한국과의 문화격차 인식이 높은 필리핀과 기타 출신국 어머니가 동화 수준이 높은 반면에 문화인식 격차가 중간 수준인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동화·분리·주변화 수준이 다른 출신국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Kim(2009a)의 연구는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을 통해 좁혀질 가능성이 높은 문화격차 인식이 문화적응의 각 유형과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어 수준이 높거나 한국 거주기간이 길다고 하여도 긍정적 문화적응 유형으로 여겨지는 통합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분리나 주변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문화적응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긍정적 측면도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아동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440여명의 중국계 이민 청소년의 품행 문제와 어머니의 문화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Liu, Lau, Chia-Chen, Dinh, Kim(2009)의 연구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졌으며 체벌을 비롯한 부정적인 훈육 수준은 낮아졌고 이는 청소년 자녀의 품행 문제 감소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라도·강원도·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만 4-6세 아동과 대상아동의 어머니 31쌍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을 분석한 June(2008)의 연구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민감성이 높고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수준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정착 사회와도 충분히 접촉을 하는 유형인 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민감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육을 보인 반면에, 자신의 고유 집단 뿐 아니라 새로운 이주사회와의 관계가 모두 끊어진 상태인 주변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빈도가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Kim(2009b)은 서울·경기 지역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3, 4, 5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 1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의 수준은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분리 수준이 낮을수록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합이라는 문화적응 유형은 양육행동에 긍정적이지만 분리라는 문화적응 유형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양육지식, 문화적응 유형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각각의 변인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이주와 적응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출신국과 한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취사선택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위에서 언급된 요인들의 일부만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유형을 매개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불일치한 결과를 보고하거나(예 : Kim *et al.*, 2008; Kim, 2009a) 양육행동,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양육지식, 문화적응 유형의 부분적인 관계만을 보고하고 있는(예 : Kim *et al.*, 2008; Kim, 2009a)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로 양육행동, 양육지식, 문화적응 유형,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양육행동, 양육지식, 문화적응 유형,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은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유형을 매개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1년부터 2012년에 서울과 인천의 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양육 및 한국어 방문사업과 센터 내의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고 있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130명이다. 방문사업의 경우 방문교육지도사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할 때 설문지가 배부 및 수거되었으며, 센터 내 한국어 교실의 경우에는 한국어 수업 후에 일괄적으로 배부 및 수거되었다. 연구대상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은 44명(33.9%), 중국 출신은 40명(30.8%), 일본과 필리핀 출신은 각각 12명(9.2%)이었다. 나머지 22명의 출신국은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 대만 등이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측정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조사 과정을 거쳤다. 첫째, 본 연구가 실시되기 전인 2010년에 서울시 A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주요 사용 언어를 확인하고 각 언어를 전공하고 있는 한국인 대학원생이나 각 언어를 사용하는 출신국에서 온 대학원 유학생이 설문지를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A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10명에게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셋째, 10명의 어머니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동시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확인하여 번역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1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중 가사와 육아로 인한 시간적 부족과 수십 문항을 읽고 답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개별 문항의 신뢰도 정보 및 난이도에 기초하여 설문문항의 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였다.

### 1) 양육행동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Park(2000)이 제작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미취학 자녀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에게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원 척도의 네 가지 하위 영역(예: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과는 다르게 크게 두 요인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온정(warmth)’으로 명명하고자 하며 여섯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아이의 나쁜 점을 지적할 때보다 좋은 점을 칭찬할 때가 더 많다”, “나는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 “나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화를 낸다”(역코딩)가 해당되며 Cronbach  $\alpha$ 는 .57이었다. 네 문항으로 구성된 두 번째 요인은 ‘과보호(overprotection)’로 명명하고자 하며 “나는 아이가 버릇없게 굴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나는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를 감싼다” 등의 문항이 이 요인에 속한다. Cronbach  $\alpha$ 는 .59이었다. 이 척도는 모든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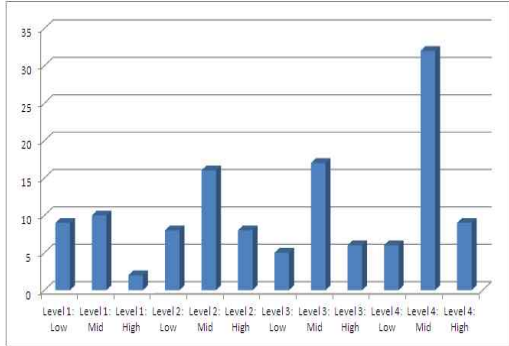
### 2) 문화적응 유형

Berry(2002)가 동양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문화적응척도(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on Scale : EAAM)를 수정사용한 Kim (2009b)의 문화적응척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동화’, ‘통합’, ‘주변화’, ‘분리’라는 네 개의 문화적응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통합과 동화(integration and assimil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분리(separat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각 유형을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는 ‘통합과 동화’가 .68, ‘주변화’가 .68, ‘분리’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양육지식

양육지식은 Larsen과 Juhasz(1986)의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KCDI)를 번역하여 난이도를 바탕으로 추려진 문항을 사용하였다. KCDI는 미취학 아동의 발달에 대해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의 네 영역에서 아동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_\_\_\_\_ 할 때, 아이는 스스로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정서 발달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 “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기”, “②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기”, “③ 아이를 쉽게 다루기 위해 아이의 수치를 이용하기”, “④ 엄하지만 아이의 행동을 수정해 줄 때는 친절하기”와 같은 보기를 주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의 변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맞거나 틀리게 응답한 문항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60~70%인 문항을 각 영역별 세 문항씩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맞는 답에는 1점, 틀린 답에는 0점을 부여하고 해당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각 영역의 양육지식을 측정하였다.



<Figure 1> Distribution of Korean language levels

#### 4)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한국어수준의 경우 1급 상·중·하부터 4급 상·중·하로 평가되며, 현재 방문사업과 센터 내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하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1급 하 수준부터 4급 상 수준까지 분포가 고르지 않으므로 변곡점을 이용하여 크게 세 집단(예: 1급 하~2급 중; 2급 상~4급 하; 4급 중과 상)으로 한국어 수준을 나누었다. 한국거주기간의 경우,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으므로 로그값을 취하여 정규분포로 조정된 뒤 분석에 사용하였다.

#### 5)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출신국, 교육수준, 소득수준, 미취학 자녀의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어머니 연령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크게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2011년 현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가구원의 수에 따라 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대신에 다수를 차지하는 가구원의 수를 정하여 그 가구원의 수에

해당되는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다. 이는 본국에서 온 친정 부모님 등 동거하는 가구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의 편의상 월별 가구소득을 비율등간변수 대신 서열변수(예: 100만원~200만원)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구원의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때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인 가구가 응답자의 56%를 차지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4인 가구의 연 최저생계비인 1,728만원을 적용하였으며 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연구(예: Mayer & Jencks, 1989)를 고려하여 가구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원을 초과한 가구로 나누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도 분석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양육활동의 내용이 달라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양육행동, 양육지식, 문화적응, 한국어 수준, 한국거주기간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ANOVA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양육지식과 문화적응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1) 양육지식과 문화적응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한 모형, 2) 양육지식만 포함한 모형, 3) 문화적응만 포함한 모형, 4)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을 대상으로 Wald chi-square test를 실시하여 주어진 자료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이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에는 Mplus 5와 Stata 11이 사용되었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경로분석에 투입되는 변인들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에 의하면,

중국과 ‘그 외(몽골, 카자흐스탄 등)’ 출신국 어머니들은 베트남 어머니들에 비해 과보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F = 11.42, p < .001$ ), 온정 수준은 베트남 어머니들이 중국 어머니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 = 4.31, p < .01$ ). 양육지식은 일본, 중국, ‘그 외’ 국가 어머니들이 베트남 출신 어머니에 비해 높았으며( $F = 10.36, p < .001$ ),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과 동화 수준은 베트남 어머니가 ‘그 외’ 출신국 어머니에 비해 높았으며( $F = 2.87, p < .05$ ) 주변화 수준은 중국 어머니가 필리핀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 = 3.33, p < .05$ ). 한국어 수준은 출신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이

<Table 1>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knowledge and acculturation by the country of origin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Knowledge	Acculturation			Korean Level			Years in Korea (log)
	Over-protection	Warmth		Integration & Assimilation	Marginalization	Separation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M(SD)	M(SD)	M(SD)	M(SD)	M(SD)	M(SD)	N(%)	N(%)	N(%)	M(SD)
Vietnam (N = 44)	7.64 (2.05)	4.82 (3.29)	5.90 (2.43)	23.36 (3.20)	6.79 (2.29)	9.83 (2.93)	21 (50.0)	12 (28.6)	9 (21.4)	1.29 (0.46)
Philippine (N = 12)	7.55 (2.07)	2.10 (4.98)	7.55 (2.34)	19.88 (5.25)	5.00 (2.16)	10.33 (2.57)	8 (66.7)	4 (33.3)	0 (0.0)	1.41 (0.77)
Japan (N = 12)	9.08 (1.93)	1.91 (2.31)	10.09 (1.30)	22.67 (5.25)	6.08 (1.73)	10.25 (2.56)	2 (16.7)	2 (16.7)	8 (66.7)	1.56 (0.88)
China (N = 40)	9.13 (1.86)	2.47 (3.38)	8.37 (2.20)	22.59 (3.55)	7.58 (2.38)	9.29 (2.62)	10 (25.0)	15 (37.5)	15 (37.5)	1.49 (0.63)
Others (N = 22)	11.48 (3.23)	4.64 (2.42)	8.05 (2.40)	20.27 (4.56)	7.32 (2.07)	9.14 (2.38)	4 (18.2)	9 (32.8)	9 (32.0)	1.83 (0.61)
$\chi^2, F$	11.42***	4.31**	10.36***	2.87*	3.33*	0.76	22.78**			2.69*
	China > Vietnam; Others > Vietnam, Philippine, Japan, China	Vietnam > China	Japan, China, Others > Vietnam	Vietnam > Others	China > Philippine					Others > Vietnam

\* $p < .05$ . \*\* $p < .01$ . \*\*\* $p < .001$ .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the country of origin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sup>1)</sup>		Number of children			Age of the youngest	Age of mother
	Less than high-school	High-school grad.	More than high-school	Not Low	Low	1	2	3		
	N(%)	N(%)	N(%)	N(%)	N(%)	N(%)	N(%)	N(%)	M(SD)	M(SD)
Vietnam (N = 44)	18 (40.9)	22 (50.0)	4 (9.1)	22 (50.0)	22 (50.0)	28 (63.6)	15 (34.1)	1 (2.3)	3.14 (1.96)	28.25 (4.18)
Philippine (N = 12)	0 (0.0)	3 (25.0)	9 (75.0)	8 (66.7)	4 (33.3)	8 (72.7)	2 (18.2)	1 (9.1)	3.17 (1.99)	32.00 (7.06)
Japan (N = 12)	0 (0.0)	4 (33.3)	8 (66.7)	11 (91.7)	1 (8.3)	5 (41.7)	7 (58.3)	0 (0.0)	2.83 (1.27)	36.00 (4.79)
China (N = 40)	6 (15.0)	27 (67.5)	7 (17.5)	20 (50.0)	20 (50.0)	26 (70.3)	11 (29.7)	0 (0.0)	3.43 (1.85)	34.18 (5.33)
Others (N = 22)	1 (4.8)	5 (23.8)	15 (71.4)	10 (45.5)	12 (54.6)	15 (68.2)	7 (31.8)	0 (0.0)	2.85 (2.13)	32.36 (2.75)
$\chi^2$ , F	55.77***			8.82		20.14			0.42	11.05*** Japan, China, Others > Vietnam

\*\*\* $p < .001$ .

<sup>1)</sup> The families whose yearly income was over ₩20million were categorized into 'not low' group.

주의 역사가 긴 일본 출신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상급의 한국어 수준에 분포되어 있으며 필리핀 출신 어머니의 50%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66.7%는 초급의 한국어 수준을 보였다( $\chi^2 = 22.78, p < .01$ ). 한국 거주기간도 출신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그 외' 출신국가 어머니들이 평균 6.23( =  $\exp(1.83)$ )년으로 거주기간이 평균 3.63( =  $\exp(1.29)$ )년인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에 비해 유의하게 한국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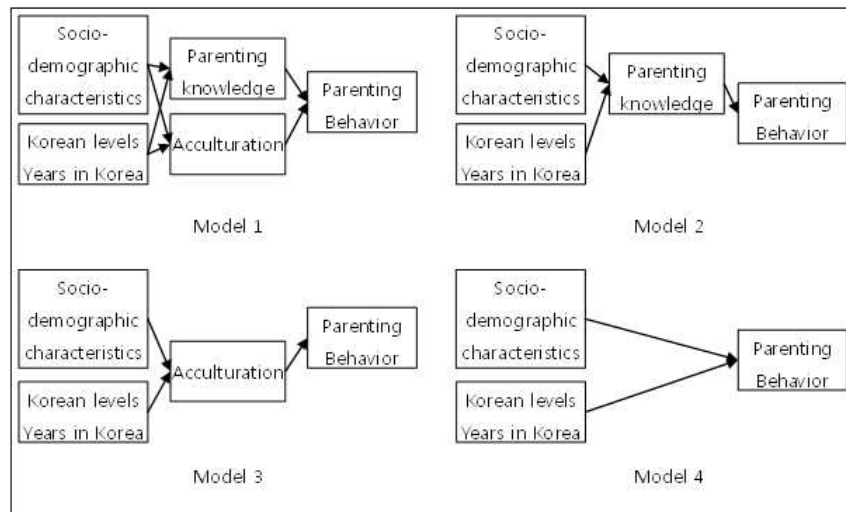
Table 2를 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라 교육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hi^2 = 55.77, p < .001$ ) 필리핀과 일본 출신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다른 출신국 어머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 자녀의 수, 막내자녀의 연령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베트남 어머니의 연령은 일본, 중국, '그 외' 출신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는데 ( $F = 11.05, p < .001$ ) 다른 출신국 어머니의 평균연령이 30대 초중반인 것에 비해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약 2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역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유형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Wald chi-square test를 통해 비교한 결과가 Figure 2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가 가장 많은 모형 1을 대체모형으로 하고 매개변인이 하나도 없는 모형 4를 영모형으로 하였을 때 대체모형이 더 유의하였는데( $\chi^2 = 160.53, p$

$< .001$ ), 이는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직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 1을 대체모형으로 하고 경로의 수가 작은 모형 2와 모형 3을 각각 영모형으로 하였을 때 문화적응 유형만을 매개변인으로 취한 모형 3이 모형 1에 비해 주어진 자료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모형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chi^2 = 1.47, p > .05$ ). 즉,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종 분석에 사용



Note. 모형의 간소화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포함시키지 않음

<Figure 2> Comparison of four models

<Table 3> Results of Wald chi-square test

Models	Comparison	Chi-square
1. A model with mediators of “parenting knowledge” and “acculturation”	Model 4	160.53***
2. A model with a mediator of “parenting knowledge”	Model 1	126.51***
3. A model with a mediator of “acculturation”	Model 1	1.47
4. A model without any mediator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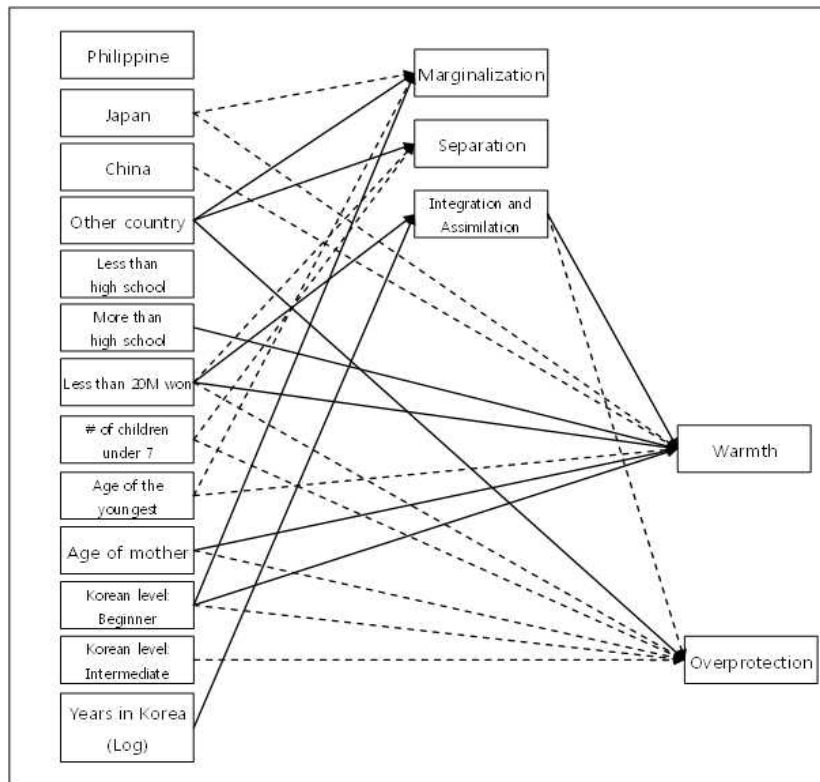
\*\*\* $p < .001$ .

된 모형 3의 모형 적합도는 CFI가 1.000, TLI가 1.000, RMSEA는 0.000이었다. 모형 3에 기초하여 살펴본 결과는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다.

### 3.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모형 3에 기초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3과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 수준, 미취학 자녀의 수, 막내 자녀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어 수준과 한

국거주기간은 각각 주변화 수준과 통합 및 동화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 중 양육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통합 및 동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에 이르는 유의한 경로만을 살펴본 Table 4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합 및 동화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에( $\beta = 0.37, p < .001$ )과 보호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38, p < .001$ ). 그리고 출신국을 비롯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어머니의 통합 및 동화 수준은 한국거주기간(로그값)이 길어질수록



Note. 유의한 경로만 소개하였으며 실선은 정적관계, 점선은 부적관계를 의미. 모형의 간소화를 위하여 잔차는 생략됨. 준거집단은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 한국어 상급 수준.

<Figure 3> Path model based on Model 3

&lt;Table 4&g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based on Model 3

	Warmth	Overprotection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Estimate(S.E.)	Estimate(S.E.)	Estimate(S.E.)
<b>Acculturation</b>			
Marginalization	-0.06(0.08)	0.03(0.06)	-
Separation	-0.15(0.09)	0.01(0.06)	-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0.37(0.10)***	-0.38(0.08)***	-
<b>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b>			
Philippine	0.08(0.10)	-0.06(0.07)	-0.05(0.11)
Japan	-0.31(0.13)*	0.17(0.09)	0.04(0.13)
China	-0.23(0.10)*	0.07(0.07)	-0.02(0.11)
Other country	-0.12(0.09)	0.58(0.07)***	-0.17(0.09)
Less than high school	0.03(0.07)	0.01(0.05)	0.00(0.08)
More than high school	0.17(0.08)*	-0.04(0.06)	0.05(0.08)
Less than 20M won	0.20(0.09)*	-0.15(0.07)*	0.23(0.10)*
Number of children under 7	-0.09(0.11)	-0.20(0.08)*	-0.18(0.11)
Age of the youngest	-0.26(0.08)**	0.07(0.06)	-0.03(0.08)
Age of mother	0.29(0.09)**	-0.16(0.07)*	0.18(0.10)
<b>Korean levels and years in Korea</b>			
Korean level : Beginner	0.25(0.13)*	-0.25(0.09)**	-0.20(0.13)
Korean level : Intermediate	0.09(0.09)	-0.36(0.07)***	-0.18(0.10)
Years in Korea (log)	-0.15(0.08)	0.01(0.06)	0.31(0.08)***

Note. Reference group : Vietnam, High school graduate, Korean level-Advanced.

\* $p < .05$ . \*\* $p < .01$ . \*\*\* $p < .001$ .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31, p < .001$ ).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수준과 한국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접효과·직접효과·전체효과를 알아본 결과(Table 5 참고), 한국거주기간은 문화적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양육행동의 온정 수준은 높아진 반면에( $\beta = 0.14, p < .01$ ) 과보호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beta = -0.12, p < .01$ ). 그러나 한국거주기간의 전체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한

국거주기간은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은 문화적응 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어가 초급 수준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한국어가 상급 수준인 어머니에 비해 온정 수준은 더 높고( $\beta = 0.25, p < .05$ ) 과보호 수준은 더 낮았다( $\beta = -0.25, p < .01$ ). 그러나 간접효과까지 고려한 전체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수준이 초급 수준인 어머니와 상급 수준인 어머니 간에는 양육행동에 유의한 차

<Table 5> Effects of years in Korea and Korean language levels on parenting behavior

Effects from		To warmth Estimate(S.E.)	To overprotection Estimate(S.E.)
Years in Korea(log)	Total	-0.01(0.09)	-0.12(0.06)
	Direct	-0.15(0.08)+	0.01(0.06)
	Total indirect	0.14(0.05)**	-0.12(0.04)**
Korean level : beginner	Total	0.16(0.13)	-0.16(0.10)
	Direct	0.25(0.13)*	-0.25(0.09)**
	Total indirect	-0.09(0.08)	0.09(-0.06)
Korean level : intermediate	Total	0.01(0.10)	-0.29(0.08)***
	Direct	0.09(0.09)	-0.36(0.07)***
	Total indirect	-0.08(0.05)	0.07(0.04)

+*p* < .10. \**p* < .05. \*\**p* < .01. \*\*\**p* < .001.

Note. Reference group : Korean level - Advanced.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이 중급 수준인 어머니는 상급 수준인 어머니에 비해 과보호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beta = -0.36, p < .001$ ), 이는 직접효과를 포함한 전체효과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29, p < .001$ ). 즉, 한국어 수준이 상급인 어머니는 중급인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과보호 수준이 높았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양육지식과 문화적응 유형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로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은 다른 출신국의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연령, 학력수준,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양육지식 수준이 대체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반면에 통합과 동화 수준은 높고 온정 수준은 높았다. 이는 필리핀과 기타 출신국 어머니의 동화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에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다른 출신국 어머니에 비해 동화 수준이 높다는 Kim(2009a)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베트남 출신 어머니들은 무작위 표집된 연구대상이 아니며 비교대상 출신국 어머니들의 규모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베트남 출신 어머니에게 확대적용하여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어 수준과 양육지식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동화 수준이 높고 온정 수준도 높은 베트남 어머니들의 특성

은 이후 경로분석에서 보여줄 각 변인간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문화적응 유형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이 주어진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였으며, 양육지식은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유의한 경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수준과 한국 거주기간이 양육지식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양육지식이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분석을 통해 한국어 수준 및 한국 거주기간과 양육지식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양육지식은 한국어 수준이나 한국 거주기간보다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해서는 통제될 수 없는 문화적 특성(예 : 교육제도)이 양육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의 해석은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양육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발달을 촉진하는 양질의 가정환경을 제공하고(Benasich & Brooks-Gunn, 1996; Huang *et al.*, 2005; Yoon & Cho, 2004) 아동의 발달 연령에 맞는 양육을 제공하며(Song & Kim, 2008)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아동의 요구에 더 민감하고 아동에게 더 많은 언어적·신체적 자극을 제공하며 처벌적인 훈육방법은 덜 사용한다는(Dukewich *et al.*, 1996; Huang *et al.*, 2005)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

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주민 부모는 이주국의 양육과 관련된 신념과 지식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양육행동에 비해 양육신념과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규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Bornstein과 Cote(2004)는 일본계 이민자의 양육행동과 양육신념 및 지식을 미국의 유럽계 어머니와 비교하였는데, 일본계 이민자의 양육행동은 일본에 있는 일본인 어머니보다 미국의 유럽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가까웠지만 양육신념과 지식은 미국의 유럽계 어머니보다 일본에 있는 일본인 어머니에 더 가까웠다고 한다. 즉, 외형으로 드러나는 양육행동은 이주국의 것을 따르지만 드러나지 않는 양육신념과 지식은 출신국의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선주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교한 Jung과 Chung(2012)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선주민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양육지식의 수준 차이가 양육행동의 유형별 수준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선형적인 관계(예 : Song & Kim, 2008; Yoon & Cho, 2004)는 양육신념과 지식에 큰 변동이 없는 선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출신국과 이주국의 양육신념과 지식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는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이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되는 개념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 거주기간은 ‘통합과 동화’라는 문화적응 유형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직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 거주기간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Kim(2009b)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데, 이 연구에서 한국 거주기간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문화적응 유형별 수준 차이는 양육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한국 거주기간은 출신국을 비롯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양육효능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거주기간이 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거주기간이 짧은 어머니가 한국거주기간의 차이 자체로 인해 양육행동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다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신국과 이주국의 문화가 어머니의 정체성에 고루 반영되면서 양육행동에도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통합과 동화’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온정 수준은 높은 반면에 과보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은 반면에 분리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다는 Kim(2009b)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근방법(예 : 부모교육과 훈련)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에 앞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고루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통합 프로그램이 실제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 때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에 적용하여 자기선택(self-selection)으로 인한 편의를 최대한 줄이

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외에도 이주민으로서의 다양한 한국 경험을 몇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예 : 경제활동, 양육활동, 이웃교제활동)이 문화적응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어 수준은 문화적응 유형을 거쳐 간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이 초급일 경우에는 상급인 어머니에 비해 출신국의 문화만을 고수하는 ‘주변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변화는 양육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어 수준과 문화적응 유형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 익숙해질수록 문화격차 인식이 줄어들고(Kim, 2009a) 문화격차 인식 수준이 작을수록 통합과 동화 수준은 높아지고 주변화 수준은 낮아진다는(Kim, 2009b)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문화적응 유형과 양육행동을 보이리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수준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문화적응 유형이라는 간접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한국어 수준과 문화적응은 선형적인 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나, 필리핀 출신 어머니는 주변화 수준이 다른 출신국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베트남 출신 어머니는 통합과 동화 수준이 다른 출신국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출신의 어머니들은 한국어 수준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화적응 수준이 다른 출신국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Table 1 참고). 본 연구와 달리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

은 상태에서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격차 인식과 문화적응 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Kim(2009b)의 연구는 문화격차 인식이 높은 필리핀과 기타 출신국 어머니가 동화 수준이 높은 반면에 문화인식 격차가 중간 수준인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동화·분리·주변화 수준이 다른 출신국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문화격차 인식을 낮추는데 일조하리라 예상되는 한국어 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긍정적 문화적응 유형으로 여겨지는 통합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실천 현장에서 한국어 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문화적응에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는 예단을 내리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어 수준이 양육행동에 미친 전체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어 수준이 상급인 경우는 중급인 경우에 비해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Lim, Chung(2008)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와 의사소통할 때 한국어를 사용할수록 더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출신국 언어를 주로 사용할수록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는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국어 수준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정적인 관계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예측과는 반대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어 수준이 상급인 어머니가 “아이가 버릇없게 굴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와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를 감싼다” 등의 문항에 대해 자신의 양육행동을 반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중급 수준인 어머니보다 더 높게 나왔으며 초급 수준 어머니와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어 수준이 상급인 어머니가 중급 수준인 어머니에 비해 과보호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 이주국의 언어습득 정도는 긍정적인 양육행동보다는 이주국에서 통용되는 양육행동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주언어의 유창성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의 습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예 :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는 한국어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한국의 양육문화를 더 많이 습득하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인터뷰한 Choi, Woo, Jung, Park, Yi(2009)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출신국 문화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선주민 어머니들이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한국어 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양육문화를 체화시키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주국의 양육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주의 역사가 긴 북미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 Sampson(2008)은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미국문화에 비해 덜 폭력적인 출신국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 어머니와 이주해 온 히스패닉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교한 Altschul과 Lee(2011)의 연구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히스패닉 어머니의 공격성이 남미에서 이주해 온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의 양육방식을 흡수하는 수준이 높으며 한국의 양육방식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인지하듯이 과보호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의 양육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출신국의 양육방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문화적응 유형, 양육행동이 각각 선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이는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한정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보이는 특성으로 인한 선택편의(예를 들어, 비이용 집단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한국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가 연구결과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화적응 유형에 대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주의 역사가 길고 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해 일찍이 연구를 시작한 서구의 경우에는 이민자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차이(acculturation gap)에 대한 연구(예 : Birman, 2006; Costigan & Dokis, 2006)도 진행되어 왔다. 학령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이들의 자녀가 경험하는 문화적응의 차이가 부모-자녀관계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각 출신국 집단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만 타당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척

도의 신뢰도가 낮다는 한계를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집단별 응답자의 수를 확보하여 문항 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등을 통해 각 출신국별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ltschul, I., & Lee, S. (2011). Direct and mediated effects of nativity and other indicators of acculturation on Hispanic mothers' use of physical aggression. *Child Maltreatment, 16*(4), 262-274.
- Berry, J. W. (2002). Psychology of acculturation :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Newbury Park, CA : Sage.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2-332.
- Birman, D. (2006). Acculturation gap and family adjustment : Findings with Soviet Jewish refugees in the U.S. and implications for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5), 568-589.
- Bornstein, M. H., & Bohr, Y. (2011).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Parenting. In R. E.

- Tremblay, M. Boivin, & R. deV. Peters (Eds.), *Encyclopedia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Ottawa, Canada : Center of Excellenc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11.
- Bornstein, M. H., & Cote, L. R. (2004). Mothers-parenting cognitions in cultures of origin, acculturating cultures, and cultures of destination. *Child Development, 75*(1), 221-235.
- Choi, N., Woo, H., Jung, H., Park, H., & Yi, S. (2009).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255-268.
- Chung, Y. S., & Shin, J. H. (2009). Parenting style, ego-resilience, teacher 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ship affecting psychological maladjustment : immigrant women's children and their host pe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8*, 171-194.
- Costigan, C. L., & Dokis, D. (2006).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acculturation differences and adjustment within immigrant Chinese families. *Child Development, 77*(5), 1252- 1267.
- Dichtelmiller, M., Meisel, S. J., Plunke, J. W., Bozynski, M. E. A., Clafin, C., & Mangelsdorf, S. C. (1992).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knowledge to the development of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3*, 210-220.
- Gu, S. Y. (2007). Qualitative research on the lives children of the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a child care center and their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5), 95-124.
- Hwang, S., & Jeong, O. (2008). A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Correlation of the Children in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7*(1), 81-102.
- Jeong, E. (2004). A Study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Living in an Agricultural Village.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3*(3), 33-52.
- Jun, H., Pae, S., & Kwak, K. (2008). Practices and meanings of immigrant mothers' support for children's education : Cases of mothers from the Philippines and Japan. *Family and Culture, 20*(3), 161-186.
- June, E. (2008). Multicultural family mother-child interaction : Relation to maternal accultu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S. Y., & Chung, H. (2012). Comparison of Parenting Behaviors between Marriage-immigrant Mothers and Native-born Mothers : Mediating Roles of Parenting Beliefs and Parenting Knowled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8*, 39-65.
- Kim, H. (2009). The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the culture gap, and cultural adaptation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on parenting efficacy.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5), 229-254.
- Kim, H. K. (2009b). An analysis of the related variables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Unpublished doctoral

-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Lim, J., & Jung, S. (2008). A Comparison on Multi-cultural Mothers' Rearing Attitudes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43-164.
- Korea Immigration Service & Ministry of Justice (2012). Distribution of marriage immigrants by country of birth, year of entry, and residential district. Retrived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819&bbs=INDX\\_001](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819&bbs=INDX_001)
- Lareau, A. (2002). Invisible inequality : Social class and childrearing in black families and white famil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747-776.
- Lee, S. L. (2012). Multicultural aspects of family change and policy implications(ISSN 2092-7117).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157.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iu, L. L., Lau, A., Chia-Chen Chen, A., Dinh, K. T., & Kim, S. Y. (2009). The influence of maternal acculturation,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arenting on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conduct problems : Testing the segmented assimilation hypothesi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8(5), 691-702.
- Oh, S. B. (2007).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roblems of children born in marriage-immigrant homes. *Education Review*, 22, 186-213.
- Park, H., Rhee, C., Rho, Y., & Lee, S. (2012). Impact of bilingual, bicultural home environment on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outcom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65-388.
- Park, J. (2000).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K., & Kim, S. (2007).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 Children of Interracial Families in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8(5), 1-18.
- Phinney, J. S., & Flores, J. (2002). "Unpackaging" acculturation : Aspects of acculturation as predictors of traditional sex role attitud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320-331.
- Sampson, R. J. (2008). Rethinking crime and immigration. *Contexts*, 7(1), 28-33.
- Song, Y., & Kim, Y.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81-203.
- Yoon, H., & Cho, B. (2004). Maternal Knowledge of Child-Rear Home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1(2), 59-88.

2012년 12월 2일 투고, 2013년 3월 25일 수정  
2013년 4월 16일 채택